

안전점검의 고객만족 강화와 함께

己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국가적으로는 IMF 관리체제를 맞이한 총체적 변혁기로 고도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거품을



제거하고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 있는 제2의 건국을 위해 몸부림친 한 해였습니다.

한편 우리 협회도 1997년도에 이어 자율적인 경영합리화로 가일층 내실화를 기하였던 해였습니다.

첫째, 예산규모의 축소를 통해 사원사의 출연 부담을 줄이고 자체 수입을 늘리는 한편, 우리 협회의 고유한 각종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였습니다.

둘째, 창립 25주년 기념 위험관리 세미나를 개최하여 창립 이후 우리가 수행해 온 주요 업무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평가받아 우리의 위상과 앞으로의 방향을 정립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셋째, '불조심 어린이 마당' 행사를 두 번째로 개최하였습니다. 이 행사에 참가한 학생은 2년간 12,200여명이지만, 참가한 학생의 가정과 참여한 학교 전체를 감안하면

그 파급효과는 크며 안전교육의 생활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FILK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처음으로 개최

하여, 인증업무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고객관계를 심화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다섯째, 그동안 꾸준히 실시해 온 민간위탁교육 외에 시·도별로 소방관을 초청하여 특별과정을 수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실무에 종사하는 전국의 소방공무원에게 선진국 수준의 전문 기술을 전달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됨으로써 상호 업무 협조를 통하여 국가방재기술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데 공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지난 연말에는 장기적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본부장제도를 도입하여 앞으로는 사업본부별로 업무의 기획, 관리 및 평가를 함으로써 경영효율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제도를 근본적으로 혁

방재산업에 선도적 역할 수행



신하여 승격과 급여를 업무성과에 연계시키고 인센티브를 활용, 생산성을 높이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스스로 우리 조직을 존립시키고 또한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자기혁신임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올바르게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즈음하여 우리 협회는 다음과 같이 역점을 두고 시행할 주요 실천사업을 선정하여 올해의 경영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 창립 26주년 기념사업으로 "안전점검대상건물의 관리책임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협회의 1차적인 고유업무인 무료안전점검에 대한 평가를 받고, 고객이 원하는 바를 파악 실천함으로써 고객만족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불조심 어린이 마당' 행사를 계속 개최하여 어릴 때부터 불조심을 생활화하도록 조기 사회 안전교육을 꾸준히 전개하는 것입니다.

셋째, 방재산업분야에 있어서 벤처기업의 창업을 도와주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사업에 주력하는 일입니다.

넷째, 선진국 수준의 국제적 화재안전기준을 법제화하는데 앞장서는 일입니다. 우리가 연구제정하고 있는 "한국화재안전기준"을 범국민적인 기준으로 승화시켜 고시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업과 더불어 우리 협회는 NFPA, UL, FM, IRI 등의 선진 방재기관들과 기술교류를 통해 얻어진 최신 방재기술과 지식정보를 防火災의119保險을 이용, 애독자 여러분들께 신속히 전달하여 새로운 방재기술을 익혀 "신지식인" 사회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년 동안에도 협회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防火災의119保險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애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9년 1월 元旦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이 창 규